

Trends in Plastic Packaging Industry in Germany

성장하는 브라질 포장시장

Writer

최선옥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Contents

- I. 브라질 포장재시장 규모 및 동향
- II. 브라질 포장재산업 고용 현황
- III. 브라질 포장재 수입 현황
- IV. 결론

※ KOTRA 글로벌원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I. 브라질 포장재시장 규모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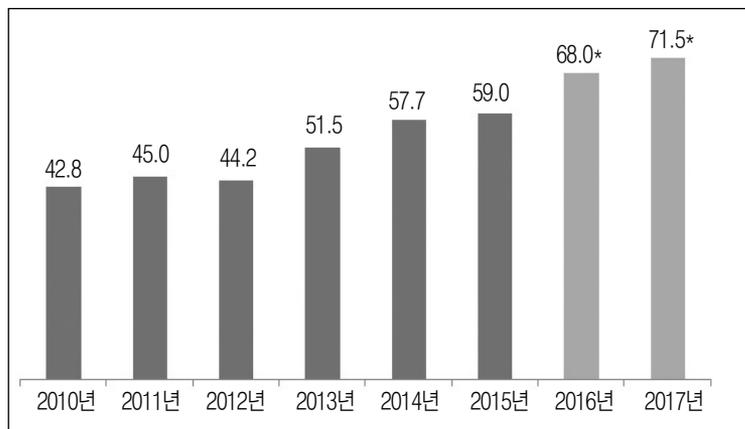
브라질 포장재시장은 최근 수년간 침체현상을 보여 왔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2017년 브라질 포장재산업은 경제 회복에 따라 소비재 생산이 늘면서 전년대비 1.96% 성장했다.

브라질 포장재시장은 생산 증가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재는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 중 하나였으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IBRE-FGV 경제 연구소가 작성한 ‘포장재시장 경제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브라질 포장재 생산총액은 715억 헤알로, 680억 헤알을 기록한 2016년 대비 약 5.1% 성장했다.

[그림 1] 브라질 포장재 생산 동향

(단위: 10억 헤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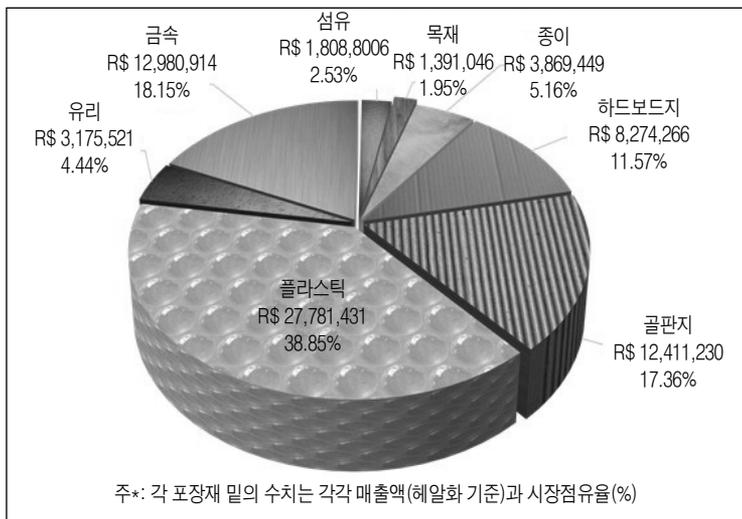
[자료원 : 브라질포장재협회(ABRE)] 주* : 추정치

[표 1] 포장재 생산량 증가율 변화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4.29	1.96
목재	-7.28	0.56
종이	-2.91	2.99
플라스틱	-8.17	3.37
유리	-2.16	3.39
금속	-0.63	-3.92

[자료원 : ABRE/IBRE-FGV]

[그림 2] 2017년 브라질 포장재 생산 동향 (단위: 헤알(REAL), %)



[자료원 : ABRE/IBRE-FGV]

IBRE-FGV의 Paulo Picchetti 연구책임자는 “포장재시장의 성장은 브라질 경제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최근 들어 포장재 기업들은 기술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포장재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가 회복하면서 2017년 포장재 생산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플라스틱산

업협회 (Abiplast) 관계자는 “포장재는 개인위생용품, 청소용품, 화장품, 식품 및 음료수 등 경제 위기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포장재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이 적었다”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포장재시장은 목재,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질에 따라 5가지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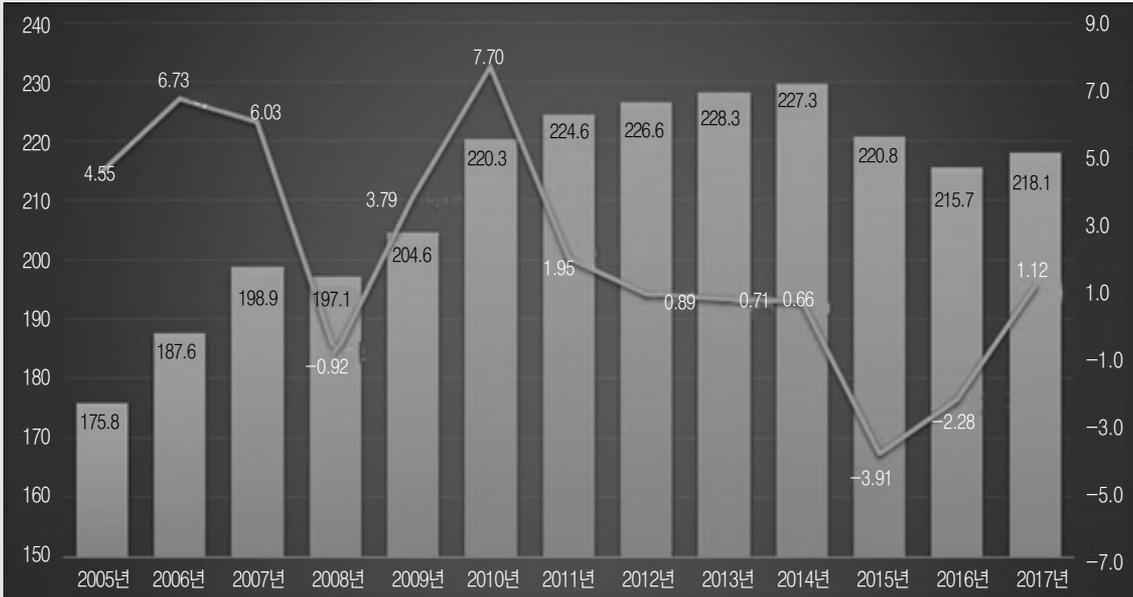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그중 4개 분야(목재, 종이, 플라스틱, 유리)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재는 식품 및 각종 소비재, 가전제품, 기계 장비 등과 같은 내구재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맞게 각각 사용되고 있다. 한편, 금속 포장재는 전년 대비 시장이 하락한 유일한 카테고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II. 브라질 포장재산업 고용 현황

브라질 포장재 업계는 2017년 12월 기준 21만 8,14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 포장재 분야는 2017년 12월 기준 11만 5,558명의 정규 인력을 보유, 포장재 산업 전체 고용의 52.97%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골판지 분야로 3만 2,355명(14.83%), 3위 종이 2만 1,659명(9.93%), 4위 금속 1만 7,720명(8.12%), 5위 목재 1만 3,475명(6.18%), 6위 하드보드지 9,685명(4.44%), 7위 유리 7,694명(3.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브라질 포장재 산업 정규 고용 동향(2005~2017년)

(단위 : 1,000명)



[자료원 : 브라질 고용노동부]

III. 브라질 포장재 수입 현황

포장재 별 수입의 경우, 목재 포장재가 117.18%로 가장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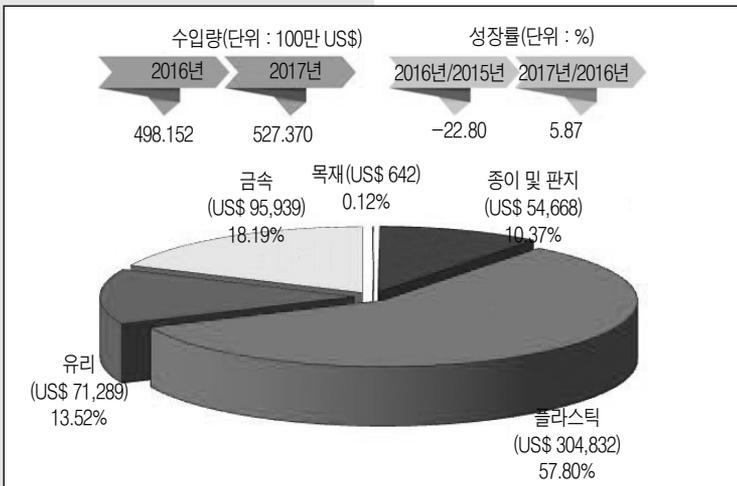
고 유리 (16.49%), 금속 (5.30%), 종이 및 판지 (4.63%), 플라스틱(3.93%) 순으로 나타났다. 브라질포장산업협회(ABRE)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포장재 수입은 전년대비 5.87% 증가해 5억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플라스틱 포장재가 전체 수입의 57.8%를 차지했으며 금속(18.19%), 유리(13.52%), 종이 및 판지(10.37%), 목재(0.12%)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정보지 DCI에 따르면, 포장재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브라질 알루미늄 포장재시장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알루미늄 포장재시장은 4.9%의 성장을 기록, 전년도의 하락세를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알루미늄산업협회

[그림 4] 2017년 브라질 포장재 수입 현황



[자료원 : ABRE]

(Abal) Milton Rego 회장은 “최근 들어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 포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IV. 결론

브라질포장산업협회(ABRE) 관계자는 “2018년 브라질 포장재 시장의 성장은 고용지표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브라질 포장재의 70%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청소용품 등과 같은 소비재 포장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은행 신용대출을 얻어 생산하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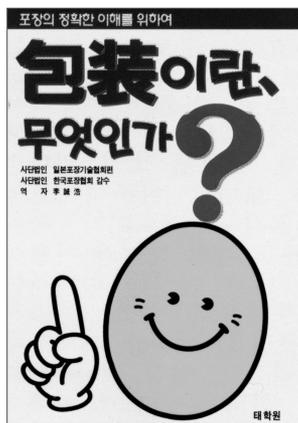
장비분야보다 경제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금속 포장재는 개인위생, 향수 및 화장품산업의 회복으로 판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루미늄 포장재 분야는 산업 생산 증가 및 포장재시장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로 인해 2018년 약 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철제포장협회(Abea?) 관계자는 “브라질 경제 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포장재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며 “캔 포장을 주로 했던 통조림 제품의 약 90%가 유연한 형태의 알

루미늄 포장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캔 포장은 주로 프리미엄 카테고리 제품에 집중되는 반면 일반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포장재로 교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에는 다양한 포장재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기능, 견고함 면에서 수입 제품에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브라질 산 화장품 용기 등은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수입제품보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제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서적 안내

포장이란 무엇인가?

국내 포장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길잡이가 될만한 신간 ‘포장이란 무엇인가’가 출간됐다.

포장의 역사와 일반적인 지식,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했다. 한편, 대표적인 포장재료를 선정해 그 성질과 용도에 대해 설명했으며 포장전반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기도 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12,000원

· 구입 문의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